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기독교사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연구 - 종교개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사의 방향성 -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방법 석사과정 장윤석*

논문초록

종교개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사의 방향성

한국 사회는 혼합주의적 세계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사 역시 혼합주의적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육 현장에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른 세계관 확립을 위해 구조와 방향의 구분, 영역 주권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가 빠지기 쉬운 오류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 교육자가 빠지기 쉬운 오류에 대해 살펴보고, 권력과 권위의 문제, 현장의 관성을 생각해보려고 한다. 또한 소명관이 왜곡된 것을 분석해 보고 바른 소명관 확립을 위해 진로와 적성, 노동, 기독교사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하여 종교개혁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적 신앙의 틀을 설정하여 기독교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기독교사가 어떻게 현장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설정하고자 한다.

주제어 : 혼합주의, 관성, 소명관, 종교개혁, 방향성

I. 서론

1. 연구목적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성을 “혼합주의적”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한국인은 “유교적”인 사회생활의 규범“을 갖고 명상과 사색은 “불교적”으로 하며 위기에 처하면 “사머니즘”으로 돌아간다고 말한다.(성인경, 2000:3) 이와 같이 한국인들은 혼합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황별로 사용하는 세계관이 다르다. 기독교인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혼합주의적 세계관 속에 살게 된다.

두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것은 신경과학 용어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표현한다. 신경가소성은 유년기에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두뇌가 끊임없이 바뀌는 유년기에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교회 밖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세상이 가르치는 세계관을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된다. 아이들은 잠재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세상의 사고방식에 점점 익숙해지게 된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며, 그마저도 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기독교 가정의 부모 역시 일반 가정의 부모와 세계관에 있어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자녀가 좋은 학벌과 높은 연봉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회적 위치를 갖길 바란다. 전형적인 “고지대 비전론”을 가

* 충북 영동 상촌초등학교 교사

지고 있다.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대학 또는 사회에서 세계관의 홍수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그때 많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난다. 그리고 불가지론, 회의주의, 신비주의와 같은 사상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실재를 점점 상실해 가기 시작한다. 교회는 출석하여 기독교적인 경건의 모양은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상태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결국 이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이 모두 분리되어 살아가는 분열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기독교사의 경우도 앞에서 제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범대학, 교육대학에서는 ‘구성주의’교육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존 듀이의 ‘경험중심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은 많은 책들을 무비판적으로 공부하기 쉽다.

그리고 공립학교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이상적인 인간상을 홍익인간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본주의, 과학주의, 다원주의, 실용주의의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다.(이승후, 2006:2)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이 구현된 임용준비서적들을 공부하다 보면 임용후보생 역시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세계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교사가 되면 승진과 같은 유형적 가치들을 자신도 모르게 추구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처음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의 비전과 꿈들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만다. 결국 기독교사의 삶은 일반 교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딤후3:5)”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살게 된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사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먼저 기독교 세계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규범적인 틀로서 “종교개혁의 원리”를 그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원리를 바탕으로 두고 기독교사의 올바른 삶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이번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II장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와 구조와 방향의 구분, 영역 주권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빠지기 쉬운 오류와 현상의 어려움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기독교사와 소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V장에서는 종교개혁의 원리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기독교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사상의 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VI장에서는 구체적인 기독교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VII장에서는 결론, 요약 및 제언으로 이번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II 기독교 세계관

1. 세계관이란?

월터스(A.Wolters)는 『Creation Regained』에서 세계관을 “사물에 대한 근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라고 정의한다. 누구도 세계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으며 이 세계관에 따라 사고와 행위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리고 월터스는 덧붙이기를 이 세계관은 “종교적 성격”을 가졌다고 말한다.(A. Wolters, 1992:16)

2. 구조와 방향의 구분

카이퍼(A.Kuyper)는 기독교를 삶의 체계(Life-System)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A. Kuyper, 1993:33)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지어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것은 “거룩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은 “속된 것”이라고 구분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 역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며 교회 밖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최근 이 세상에 들어왔어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와 구조를 파괴시키지는 못했다. 다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 선한 것을 그릇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다. 죄의 힘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구조를 파괴할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은혜로우신 섭리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계신다.

3. 영역 주권

카이퍼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피조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고 말한다.(이승후, 2006:11) 이승후는 카이퍼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주적인 의미”에서 파악한다고 본다.(이승후, 2006:11)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은 창조주의 법칙과 질서 아래에 있다. 이승후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는 창조세계의 머리로, 왕으로서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영역에서 계시의 빛을 발한다”고 주장한다.(이승후, 2006:11)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없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회복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영적이기에 어느 분야, 어느 직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주재권(Lordship)’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삼중 직분(왕, 제사장, 선지자)을 갖고 계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삼중 직분 중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 경향이 있다.

Ⅲ. 교사가 빠지기 쉬운 오류와 현장의 어려움

1. 교사가 빠지기 쉬운 오류

(1) 가르치려는 사람의 특징

현대 교육의 흐름이 가르치는 것에서 배움으로 달라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가르침’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 물론 그 지식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덜 불편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가르치려는 태도는 상대방을 자신의 아래로 내려다보기 쉽다. 그러다 보니 동등성을 상실하기가 쉽다. 동등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쉽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힘들다’는 것이다. 누구도 불편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절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엄청난 심적 부담을 가져다준다.

가르치려는 사람은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늘 ‘조용하라’고 말한다. 이런 과정에서 가르치는 자의 말이 절대적인 것이 되고 듣는 사람은 철저히 소외된다. 그러다 보니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큰 결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언제나 남의 작은 결점을 찾는다. 그리고 그것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한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것은 “자기의 결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L. Tolstoi, 1998:49)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왜 그런 결점을 갖게 되었는지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누구도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인간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2)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본 가르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오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가르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에 대해 알 수 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마23:1-7)”

①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말하는 대로 살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도 말과 행동이 다르다. 학생들에게 말은 바르게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자신이 가르친 내용이 귀찮고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철학의 구약성경이라고 불리는 ‘에밀’을 쓴 루소 역시 자신의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냈다. 최고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은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했다. 행하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몇 배나 어려운 일이다.

②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이 귀찮게 생각하는 일들을 종종 '심부름'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시킨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부당한 지시로 종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기 쉽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 무척 괴로운 일이다. 특히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을 하루 종일 듣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③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현대 한국 사회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활동의 산출물과 결과를 바탕으로 책 임 또는 보상을 하는 예산 제도이다. 공립학교의 교사 역시 “공무원”이며, 성과주의와 무관하게 행동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교육활동이 은연중에 ‘성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다보니 양질의 수업보다는 ‘공문처리’ 또는 ‘대외행사’에 주력하기가 쉽다. 그리고 ‘수업은 잘해도 표가 안 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부 교사들 사이에 퍼져 있기도 하다. 그래서 수업 보다는 당장 눈에 띄는 공문처리와 행사, 대회에 더욱 치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업의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④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 하느니라

현대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 예전과 같이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사는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는 무의식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섬기는 것에 인색하고 섬김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3) 권력과 권위

권력은 “타인 또는 조직단위의 행태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의 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지닐 경우 이 영향력을 권위라고 부른다.”

관리자들이 보기에 잘 운영되는 학급은 조용하고 교사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학급이다. 그러나 보니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교사들은 힘으로 아이들을 억누른다. 그러나 그것은 용수철 과 같이 아이들을 잠시 억눌러 놓은 것에 불과하다. 아이들은 억압된 에너지를 어디론가 발산하게 된다. 그것은 주변의 약한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다음 학년에 만나게 될 교사가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을 억압하게 되면 당장 교사가 편하다. 욱박지르고 인격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면 아이들은 다시는 대들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안으로 굹아가고 조금씩 병들어 간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는 경우 홍수 때 둑이 터지는 것처럼 견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교사는 권력과 권위를 구분하여 바른 교육을 위해 ‘권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2. 현장의 어려움

(1) 관성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 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방향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사회가 100마일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면 학교는 10마일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조주섭, 정용배, 2010:237) 그 이유를 교육을 구성하는 주체들의 관성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학부모

학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거나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학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자기 자신의 잘못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잘못에 대한 지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방어기제를 동원해서 자녀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어떻게든 감싸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는 ‘학력’에 주로 관심이 있다. 공부만 잘 하면 인성적인 결함쯤은 간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낼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좋은 결과만을 위해 공부하게 되고 배움 자체가 주는 내적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

② 학생

학생들은 저학년 때는 스펀지와 같다. 그래서 교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배운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신만의 뚜렷한 가치관이 생긴다. 그래서 사춘기에 접어들면 학생들은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고 저마다의 생각대로 산다. 사춘기에는 바른 말이 들리지 않는다. 다만 자신을 지지해 주는 또래집단의 말이 절대적으로 들리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도 그 또래집단이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보는 문화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독서, 토론과 같이 생각하는 공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다. 과도한 학업 부담은 학생들에게 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한다. 어려서부터 학원을 여러 개 다녀야 하고 쉴 틈이 없다. 학교폭력 문제 역시 심각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심각한 불안 속에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배움의 참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 학생들이 받는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OECD 최고 수준이다.

또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이 깨질 때 아이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아이들을 공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이들의 불안은 다양한 종류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난다. 많은 경우, 아이들의 문제행동의 원인은 ‘불안’과 ‘우울감’이다.

③ 교사

교사는 경력이 쌓일수록 변화의 속도가 늦어진다. 그래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대학 재학 시절’에 제한된다. 왜냐하면 어려운 임용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무의식적으로 쉬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교직은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가능성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변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승진에 관심이 없는 교사들은 자신을 ‘일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교사들은 학교에서 최대한 편한 일만 찾으려고 한다. 승진에 관심 있는 교사들은 ‘점수 쌓기’를 위해서 일하고, 승진에 관심 없는 교사들은 ‘편한 업무’만을 찾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 혁신’, ‘교육 개혁’이라는 말은 고개를 들기 어렵다.

IV. 기독교사와 소명

1. 소명관의 왜곡

오스 기니스는 소명관의 왜곡을 “구교적 왜곡”과 “신교적 왜곡”으로 구분한다.(김종철, 2008:1-2) “구교적 왜곡”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높은 것과 낮은 것,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신부, 수녀, 제사장과 같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용인된 그리스도인’은 군인, 농부, 상인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다.

오스 기니스는 이러한 왜곡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영적인 계급”을 만들었다고 본다.(김종철, 2008:2) 이러한 왜곡은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를 비롯한 많은 교부들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신교적 왜곡”은 “소명”을 “직업”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종교 개혁자들은 ‘소명’을 직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소명은 직업을 포괄하는 개념이지 결코 직업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신교적 왜곡”은 “구교적 왜곡”과도 연결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을 ‘높은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자신이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회적 명예와 경제적 풍요를 가진 일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

오스 기니스는 중년의 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이들이 가지는 중년의 위기는 ‘소명’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선택했던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뭔가 아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에 그 일과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맞는가를 고려하기보다,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나 유망하냐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4,50대에는 자기에게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꼴은 못 보겠다” 라든지 “이 일은 정말 내 일

이 아냐”라고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죠“(김종철, 2008:2-3)

교회에 다니는 학생의 직업 선택 역시 수능능력시험 결과, 내신성적과 같은 것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리고 직업이 가져다 줄 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적성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직업이 참된 기쁨의 장이 되지 못한다. 괴롭지만 경제적 수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2. 바른 소명관의 회복

(1) 진로와 적성

교사라는 직업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사회적 지위이다. 전통적으로 교사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현재는 힘든 시험을 거쳐야만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측면이다. 청년 실업 문제와 경제적 불안 속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적성에 대해 고려하기 어렵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필요가 선행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교사가 되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평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을 포기하지 못한다.

기독교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적성이 교직과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학교는 아이들만 가르치면 되는 곳이 아니다. 엄청난 분량의 행정업무를 동시에 해야 하는 곳이 학교이다. 학교는 수업 전문성, 행정적 전문성, 학생 · 학부모 ·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엄청난 양의 육체적, 감정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그래서 기독교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현장의 관성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2) 노동을 창조 섭리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관점

우리 세대는 노동을 축복이 아닌 피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항상 부러워하는 것이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원한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함으로 받으면 인간에게 복이 된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정신이 건강하다. 그리고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갖게 된다.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사람은 항상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게 되면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가난하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고 나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된

다.

육체적 노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한다. 그리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다. 적절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라브리(Labri) 선교회에 가면 항상 오전 노동 시간이 있다. 육체적 노동을 통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삶을 배우며, 고민했던 문제들을 잠시 잊고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릴 수 있다. 자신이 고민하던 것에서 벗어나와 다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3) 참된 기독교사의 필요성

학생들은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역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가정의 붕괴는 아이들이 설 곳을 점점 더 좁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쉽게 비행의 유혹을 받게 된다.

기독교사는 아이들이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존재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잘해준다고 해서 희망을 갖지는 않는다. 역설적으로 아이들은 '의연함'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교사를 통해서 희망을 얻는다. 그리고 자신도 저 선생님처럼 열심히 살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육과정에 있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를 잘 나타내주는 용어이다. 교사의 삶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각인되고 그것은 학생들의 또 다른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의연함으로 자신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때, 교사는 학생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게 된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행동을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직한 기독교사가 필요하다.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공동체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는 공동체이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모여 학교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이 정직하지 못하면, 자신은 유익을 누릴지 몰라도 공동체 전체가 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이 정직할 때, 공동체는 자원을 적재적소에 분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진정 필요한 일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공동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진정 정직하려고 노력할 때, 공동체는 점점 건강해지게 된다.

특히 학생들의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 정직한 기독교사는 아이들의 삶에 평생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사가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정직을 추구할 때, 학생들은 정직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V. 종교개혁의 원리와 기독교사

개혁주의 신학(Reformed Theology)은 “늘 새롭게 고쳐나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에 의해 늘 ‘개혁’되는 것으로 본다. 개혁주의는 성경주의와 구분되며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지양하고 교리에 입각한 바른 해석을 추구한다. 그래서 기독교사가 세계관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바른 신앙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인 종교개혁의 원리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를 통해 기독교사에게 필요한 바른 신앙적 기초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오직 성경(Sola Scriptura)

김홍만은 오늘날의 복음주의 교회가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상을 갖고 있다고 본다.(김홍만, 2013:369) 그래서 심리학, 인류학, 경영학과 같은 세상 지혜를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은 세상 학문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되는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남용과 오용이 종종 생긴다..

교육의 핵심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따라 교육의 성패가 결정된다. 김홍만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기독교사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바른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기 위해 끊임없이 성경에서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경우 사회학, 철학, 심리학, 신학과 같은 광범위한 부분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많은 양의 저술을 남겼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저술이 현대 복음주의권의 저술과 다른 점은 “성경의 충분성”을 모든 영역에서 주장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감정론(Religious Affection)의 경우 현대의 어느 심리학책도 이것을 능가할 수 없다고 제임스 패커는 말했다.(김홍만, 2013:111)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의 충분성”을 믿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이 적용되도록 힘썼다. “성경의 충분성”을 믿는 신앙을 통해 기독교사는 인간에 대한 피상적 이해를 넘어 인간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학생을 바르게 진단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의 심령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진단에 따라 치료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적 신앙의 측면에 있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경우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기에 성경을 반쪽짜리로 이해하기 쉽다.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복음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전도설교의 전문가들은 복음을 먼저 설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설교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 제목 가운데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백금산, 2004)이라는 제목도 있다.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싫어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 진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은혜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율법과 복음의 순서가 뒤집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먼저 적용되게 되면 사람들은 믿음을 “의지의 행위”로 생각하게 된다.(B. Bright, 1965:2-8, 10-13) 그 순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인간은 감정의 변화를 믿음으로 착각하게 된다. 결국 인간은 자기 의에 빠지게 되고 교만해진다. 참된 회심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교회는 명목상 신자(Nominal Christian)가 가득하게 된다.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사가 되려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2. 오직 그리스도(Sola Christus)

현대 기독교회는 건강과 부의 복음을 추구하고 있다. 건강과 부의 복음을 추구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이 부정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김홍만, 2013:372) 한국교회가 전도하는데 있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전했는가? 이러한 메시지에 익숙해진 사람은 결국 자신이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형태의 신앙을 갖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다. 바른 신앙을 가진 기독교사라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덕적, 윤리적 삶의 부재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보다 더욱 탐욕스럽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천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김홍만, 2013:373)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재권(Lordship)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Lord)이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분이다. (김홍만, 2013:372-373)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질 때 참된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

교사라는 직업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다른 분야의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와 교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왜냐하면 교사는 도덕성의 표준으로 아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는 항상 반듯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요구받는다. 교사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옷을 입는 것, 머리 스타일, 사용하는 말투와 같은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니 교사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산다. 그런데 그 압박이 교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교사는 외형적으로는 반듯하지만 속으로는 굽아 들어갈 수 있다. 외적으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은 교사로 하여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도덕성과 삶의 수준이 사회에서 교사에게 요구하는 정도만큼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교사의 모습을 보이지만 교사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음주, 가무, 오락과 같은 것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문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극복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음주 가무와 같은 것은 지나치면 교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 사람이 음주가무에 빠지게 되면 게으르게 되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교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창조적인 직업이다. 연구개발이 끊어지면 교사는 그 순간부터 가르치는 힘을 상실한다.

기독교교사는 교사의 직분을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주(Lord)”시란 사실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교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란 틀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프란시스 웨퍼는 “두 개의 의자”비유를 사용하며 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한다.(이선봉, 1995:116-126) 누구도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은 없다. 불신앙의 의자에 앉아 있는지 믿음의 의자에 앉아 있는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믿음의 의자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의 의자에 앉게 되어 있다. 때 순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의자에

앞아 참된 도덕성을 실제의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다.

3. 오직 은혜(Sola Gratia)

김홍만은 복음주의자들이 실제로 인간이 “선하며” “은혜와 함께 자유로운 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본다.(김홍만, 2013:374)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의 협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심 중생”과 같은 용어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 중에서 강조점이 점점 인간의 의지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된다. 하나님은 마치 자판기와 같이 인간이 의지만 가지고 영접기도를 하면 받아주시는 비인격적인 객체가 되어버린다. 결국 인간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인간은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 있으며 성령의 중생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기독교사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아이들은 순수하고 맑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른과 똑같이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아이들이 마냥 ‘선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휘둘리고 아이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끌려가기 쉽다.

현대의 교육학은 “존 듀이”에서 시작되는 “실용주의”노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김홍만은 실용주의를 “유용한 것은 진리이며 선한 것이다”라고 정의한다.(김홍만, 2013:300) 학생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교사는 당장에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은 교사를 무시하며 학생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업신여긴다. 학생의 의견을 경청하되 학생 역시 아담의 죄가 전가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역시 위험할 수 있다. 학생들도 죄의 습성을 갖고 있기에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 교사와 학생이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되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고전13:6)”이다. 그렇기에 교사는 학생을 신뢰하되 학생 역시 교사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하거나 기도를 학생들에게 시키는 교사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매우 조심해야 한다. 공립학교의 구조는 기독교적인 교육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성경교육 또는 기도를 하는 경우 잘못하면 ‘종합(synthesis)’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공립학교라는 구조가 가지고 있어야 할 구조와 기독교 교육이 종합되면서 애매모호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들은 심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의도한 것과는 달리 기독교에 적대적인 마음가짐을 품는 학생이 생길 수 있다. 기독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개혁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듣기 싫어하는 일반 아이들에게 성경공부와 기도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일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교육’이어야 한다. 기독교 교육이란 명목으로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사회가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많은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립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오직 은혜”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공립학교에서 짧고 깊이 없는 기독교적 가르침으로 아이들을 거듭나게 하려는 교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참된 거듭남과 변화는 딱딱한 말씀, 즉 교리설교가 강하게 행하여졌을 때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심령이 낮아져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빈약한 가르침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4. 오직 믿음(Sola Fide)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벧전1:22)”

가르치는 사람은 스스로의 ‘무오류성’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자신의 가르침을 절대화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스스로 오류가 없다고 생각할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옆에서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절대화한다.

기독교사는 진리에 대한 순종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틀렸다면 기꺼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지적 동의를 넘어서 행동의 실천으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진리에 대한 순종의 정신을 가질 때 청결한 영혼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 청결한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육도 가능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실패하는 지도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는 것’이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은 자신을 “Captain(선장)”이라고 부르라고 학생들에게 말한다. 교사는 교실의 선장이다. 매 순간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고 이 판단에 따라 학급이라는 배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그러기에 교사는 매 순간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가짐으로 바른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열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교사는 그 영향력이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에게 전 방위적으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진리를 순종하는 삶의 자세는 교사 자신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신 9:13)”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그 영혼은 진리가 들어설 공간이 없게 된다. 참된 믿음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다.(J.Owen, 2002:125) 진리를 순종할 때 부패한 죄를 죽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프란시스 웨퍼는 믿음에 대해 “빈 손”이란 표현을 쓴다.(Schaeffer, 1971:413) 김홍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의로움이나 순종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김홍만, 2013:377)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회의 경건이 무너진 이유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김홍만, 2013:386) “오직 믿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김홍만의 다음 주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도에 대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이 최선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임을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김홍만, 2013:377)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도가 최선의 방법임을 늘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대 교회는 성경의 권위보다 세상 학문의 권위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보다는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적인 원리들이 보다 주목받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의 학문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참된 기쁨과 희심을 경험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임을 깨달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재를 경험하게 된다.

5.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김홍만, 2013:381)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야망과 취향에 관심을 기울이기 쉽다. 교사의 삶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교사가 된 이후에도 교감, 장학사, 연구사, 교장, 교육청 간부와 같은 승진의 길이 열려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사 역시 무의식적으로 ‘고지대 비전론’을 품기 쉽다.

요셉과 같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요셉과 같은 비전을 품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다양한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사회와 조직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승진한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승진하지 못한 교사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교직의 초반부터 점수 경쟁에 뛰어들어든다. 그러다 보면 승진 가산점이 주어지는 일은 서로 하려고 하지만 점수가 되지 않는 일은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된다.

남교사는 승진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나이 많은 남교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년이 되도록 평교사로 근무하는 여교사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년이 되도록 평교사로 근무하는 남교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담임교사를 바꾸어 달라’는 요구를 종종 한다. 교사로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기피 대상이 되었을 때 교사는 교직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 그렇기에 남교사는 평교사로 남고 싶어도 승진의 길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자가 된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승진은 철저하게 점수 누적 경쟁이다. 모아진 점수와 상급자의 근무평정에 의해 승진 순위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받기 위해 동료 교사들과 경쟁하며, 자신의 성과를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다 보면 삶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의 과정에서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자기 사랑’에 빠져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삶은 스스로

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다. 잠시의 자랑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았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독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목상해야 한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성경적인 바른 분별력을 키우지 않으면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철저하게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김홍만, 2013:379)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상하는 가운데 죄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깨어있는 양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직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진실로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현장의 경우 행정업무와 행사가 교육활동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수업준비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학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학생들은 희망을 잃게 된다. 학생들이 배우고 생각하는 일에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독교사는 그 장(field)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생명은 수업이며 교사는 수업을 통해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기독교사가 수업에 온전히 충실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승진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사는 왜 승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한다. 분명한 소명의식 없이 승진만을 꿈꾸게 되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 직분을 남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때 승진하여 차지하게 된 자리는 권위가 아닌 ‘권력’이 된다. 승진을 생각하는 기독교사는 바른 권위로 어떻게 교육현장에 봉사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승진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각종 불법적인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될 것이다.

VI. 기독교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방향성

1. 가르치는 교육에서 돕는 교육으로

교사는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기 쉽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고방식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설득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기 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을 강요하는 교사가 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기독교사는 끊임없이 ‘돕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돕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학생을 진심으로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이 바라는 교사는 자신의 상태를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사이다. 돕는 마음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을 때 학생과의 신뢰가 짝트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진심으로 교사가 돕는 마음을 가질 때 학생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다. 무섭고, 불편한 분위기에서는 절대 배움이 일어날 수 없다.

2.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현대 한국 사회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현재의 학생들이 미래의 어른이 되어 젊어져야 할 사회적, 경제적 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상황이 현재와 같이 계속 악화된다면, 학생들은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물질적 궁핍을 어른이 되어 경험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

물질적 궁핍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물질적 궁핍을 경험하게 되면 ‘부적응’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도 적응할 수 있지만 부자로 살아왔던 사람은 가난한 삶에 결코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빌4:11) 이와 같이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자라난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이 오면 부적응 행동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인내와 감사의 정신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요즘은 가정에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하나하나가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자신의 말만 들어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으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낸다. 결국 경청능력과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종종 생긴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결코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악조건이 오더라도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작은 일에 감사하도록 도와야 한다.

3. 동정에서 공감으로

동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동정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비록 도움을 받을지언정 진정한 유익이 되지 않는다. 공감은 영어로는 “Empathy”, 동정은 “Sympathy”이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M.Rosenberg, 2011:155) 공감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도 공감하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오해와 다툼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을 때 듣기가 가능해진다. 공감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학생들은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 분주했던 교실 분위기는 차분하게 변해가고 학생들은 하나둘씩 배울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서로 배우게 된다.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이 그 상황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말하며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통은 공감에서 시작된다. 학생들을 바로잡으려고 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물음을 던지는 것이 먼저이다. 공감은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구조환상(Rescue fantasy)에서 벗어나기

“구조환상(Rescue fantasy)”은 “치료목표가 비현실적일 수 있는데 내가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이다.(임호찬, 2008:266) 주로 정신의학 또는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그래서 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완전한 인간이란 아무도 없으며 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존재이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면 Rescue Fantasy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이 신적 존재가 되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과도한 짐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심한 경우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기도 한다.

학생들은 그동안에 살아온 관성이 있다. 그것이 바뀌는 것은 참 어렵다. 그리고 바뀐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것이 ‘억압’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겉으로는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억압되어 있어 잘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던 학생들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억압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해야 한다. 많은 문제행동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울감’이다. 그 우울한 정서가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와 교사까지도 파괴하게 된다. 그래서 교사는 생각할 여유를 가져야 한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설령 학생이 대들고 화가 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왜 학생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학교이다. 학생들이 교실을 하나의 ‘피난처(Labri)’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힘든 삶 속에서도 교실에서 만큼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자신에서 안 되면 다른 교사가 또 이어서 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긴 호흡으로 멀리 바라보며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 지금 해야 할 일을 바르게 찾을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고전3:7)”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겸손히 이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5. 아이들의 아픔 이해하기

병원에서 수술 환자의 상처를 소독할 때 일부 환자는 비명을 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의사는 환자를 달래기보다는 ‘엄살이 그리 심하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 물론 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더 심한 질병을 많이 보아 왔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엄살 부린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환자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비명을 지를 만큼 아픈 순간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의사는 그 환자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 역시 생각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졌지만 지금의 학생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 속에 살아간다.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

적 빈곤이 심해진 상황에서 학생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부모의 가정생활 파탄도 한 몫을 하게 된다. 부모의 이혼은 아이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도록 한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온 부모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한국 안에서 따로 사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가정생활이 깨어진 경우 아이들 역시 똑같이 깨어지게 된다. 아이들은 철저히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문제행동의 배경에는 '사랑' 받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다.

또한 부모가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위기인 상황에 있을 경우 아이들은 종종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누구나 약자를 착취하고픈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약한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게 된다. 그 원인은 약자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아 오기 위함이다. 살다 보면 가끔씩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가져오기 위함이다.(신원선, 2009:41)

가정에서는 그 대상이 아이들이 된다. 부모의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된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아이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병들거나 가출을 하게 된다. 이런 아이들은 종종 문제행동을 일으키며 우울감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존중이란 말의 어원은 "헤아림"을 포함하고 있다.(박숙영, 2014:74)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헤아린다는 뜻이다.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같이 불안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는 아이들이 어디에도 피난처를 찾기가 어렵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아이들은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6. 아이들의 필요 이해하기

want는 주관적 성격이 있다. 그 사람이 당장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want이다. 그러나 need는 조금 다르다. need는 객관적 성격이 있다. need는 그 사람이 살아가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교사는 아이들의 need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정말 바른 사람으로 올바르게 자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관찰력이 필요하다. 관찰은 관심이며, 관찰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정민, 2010:77) 가장 큰 문제는 머리로만 생각하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실 또는 그 사람의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관찰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아이들의 진정한 필요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들의 필요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다. 교사는 아이들의 마음을 다루는 '의사'이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양이 많지 않아도 된다. 비타민이 그 적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인체의 기능을 조절해 주는 것과 같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작은 것일 수 있다. 문제는 그 작은 필요를 발견할 줄 아는 교사의 안목이다.

7. 영적 각성

영적 각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영적 각성에 기독교 세계관의 사활이 달려 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실재’는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실재를 발견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왔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영적 각성에 대해 매우 깊고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는 “구속사”에서 전도설교를 통해 명목상의 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지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래서 율법을 설교했고, 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었다. (백금산, 2004)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런 설교를 한다면 분명히 반론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와 같은 설교를 하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율법과 복음의 순서를 뒤바꾸어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자기 의에 빠지게 한다. 사람의 믿음을 ‘의지의 행위’인 것으로 착각하게 하여 겸손하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영적 대각성은 어려운 교리설교가 행해질 때 이루어졌다. 딱딱한 교리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죄에 대해 회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때 복음이 설교되면 사람들은 은혜를 깨닫게 된다. 이때 죄인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참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죄는 완벽하게 죽일(kill)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못살게 구는 것(mortify)이다.(J.Owen, 2002:87) 그래서 죄가 더 이상 기운을 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처음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친다. 그러나 나중이 되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반항하지도 못하게 된다. 그리고 체액은 빠져나가고 탈진하여 소리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J.Owen, 2002:102)

죄를 다루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게 된다. 그러나 나중이 되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죄의 영향력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J.Owen, 2002:102)

참되게 죄를 죽여 삶 속에서 도덕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울리는 팽과리와 같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경 이외의 것들을 함부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성경 안에서 이미 죄를 죽이기 위한 원리들을 분명히 밝혀 놓고 있다. 그 원리들을 잘 연구하고 계승하여 참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천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서 그 짐이 풀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짐은 무덤 속으로 사라지고 천사가 나타나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고 머리에 인을 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다.(J.Bunyan, 1678:37)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십자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되게 죄를 죽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에 죄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사라지게 된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함으로 죄를 죽일 수 있어야 한다.

프란시스 쉐퍼는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죽음을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말한다.(F.Schaeffer, 1971:307) 십자가 사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하게 묵상할 때 우리는 죄를 죽일 수 있는 참

된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VII. 결론, 요약 및 제언

올바른 기독교사의 삶을 위해서는 바른 신앙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개혁신앙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 계승되어 온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기독교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많은 유익을 줄 것이다. 기독교사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돕는 마음을 품을 때 점진적이며 지속적인 개혁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 돕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아픔과 필요를 이해하며 온전히 죄를 죽일 수 있을 때 아이들의 평생에 귀한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 덧붙여서 현대 교육학에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종합(synthesis)이나 통섭(consilience)을 지양하고 통합(integration)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어떤 교육학이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적합한지 분별하는 연구가 이어져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홍만(2013). 『개혁신앙으로 돌아가라』. 용인:킹덤북스. 111. 367-382쪽.
- 박숙영(2014). 『회복적 생활교육을 말하다』. 서울:좋은교사. 74쪽.
- 신원선(2009). “통제드라마의 사이코드라마 활용방안”. 『Korean Journal of Psychodrama』. 12(1). 41쪽.
- 임호찬(2008). 『재활심리개론』. 고양:서현사. 266쪽.
- 이승후(2006).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사 운동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정민(2010). 『한시미학산책』. 서울:휴머니스트. 77쪽.
- 조주섭, 정용배(2010). 『밥상머리』. 서울:제임스컨설팅. 237쪽.
- Albert M. Wolters(1992). Creation Regained. 양성만 역(1992). 『창조.타락.구속』. 서울:IVP. 16쪽.
- A. Kuyper(1993). Christiannity As A Life-System. 서문강 역(1993)..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서울:새순출판사. 33쪽.
- B. Bright(1965). 『사영리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서울:한국 대학생 선교회. 2-8. 10-13쪽.
- F. Schaeffer(1969). Death in the city. 이선봉 역(1995). 『개혁과 부흥』. 서울:생명의말씀사. 116-126쪽.
- F. Schaeffer(1971). True Spirituality. 권혁봉 역(1974). 『프란시스 웨퍼 전집Ⅲ : 기독교 영성관』. 서울:생명의말씀사. 307. 413쪽.
- J. Bunyan(1678). 『The Pilgrim's Progress』. Oxford University Press. 37쪽.
- J. Edwards(1741).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백금산 역(2004).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서울:부흥과개혁사.
- J. Owen(2002). The Mortification of Sin. 서문강 역(2004). 『죄 죽이기』. 서울:SFC. 87. 102, 125쪽.
- L. Tolstoy(1998). Lev Nikolayevich Tolstoy. 정민하 역(1998). 『마음의 문을 여는 지혜』. 서울:도서출판 함께. 49쪽.
- M. Rosenberg(2011). Nonviolent Communication: A Language of Life. 캐서린 한 역(2011). 『비폭력 대화』. 서울:한국NVC센터. 155쪽.
- <http://cupbooks.com/20165024431?Redirect=Log&from=postView>. (2016.5.15.). 세계관은 삶이다.
- <http://www.hidoc.co.kr/news/healthtoday/item/C0000117189>. (2016.5.15.). 한국 아동. OECD 국가 중 ‘학업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다.
- http://www.labri.kr/downloads/docs/webb_kjc_os_guinness.pdf. (2016.5.15.). 오스 기니스와의 대화.
- http://www.labri.kr/downloads/docs/sik_to_youth.pdf. (2016.5.15.). 고쳐하는 청년들에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150571>. (2016.5.15.). [조선에듀] 의대·교대 초강세. 학과 서열 파괴... 2016 정시를 말하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044227>. (2016.5.15.). 작년 학교안전사고 4만건...보상액 170억.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377201&cid=50762&categoryId=51366>. (2016.5.15.). 개혁주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39446&cid=47323&categoryId=47323>. (2016.5.15.). 자식들을 교아원에 보낸 교육 사상가.
- <http://terms.naver.com/search.nhn?query=%EA%B6%8C%EB%A0%A5>. (2016.5.15.). 권력.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7525&cid=41978&categoryId=41985>. (2016.5.15.). 권위.